“국민 건강 우선한 대승적 결단”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연장’ 의미를 듣다

글=신성민 · 사진=박재완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온 국민이 힘들어 하고 아파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축제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봤습니다. 조계종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부터 문화체육관광부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고,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을 우선한 대승적 결단입니다.”

3월 18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의 기자회견 직후 만난 조계종 문화부장 오심 스님<사진>은 불교계의 봉축 기간 연장 결정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승적 결정”이었음을 강조하며 말머리를 풀었다.

기실 불교계의 부처님오신날 봉축 기간 연장 결정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4월 30일로 1975년 공휴일 지정 이래 첫 양력 4월 부처님오신날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지난 2월 말부터 연등회 등 봉축행사 연기를 깊이 고민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을 기리기 위한 불교도의 최대 축제일을 뒤로 미루는 것에 고민과 부담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중생이 아프고 괴로운 데 내가 어찌 행복할 수 있는가’라는 유마 거사의 말처럼 우리 불교계는 이웃의 아픔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과 종단의 본말사들도 90%에 가깝게 ‘기간 연장’에 찬성했고, 이를 결정해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은 4월 30일에서 윤4월 8일인 5월 30일로 연기되고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도 5월 23일로 날짜가 변경된다. 기존 부처님오신날인 4월 30일부터 한달동안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사찰들이 일제히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를 진행한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한 달간 코로나19 극복 기도
종교, 비타민 같은 존재돼야
“5월30일 병마 극복 축제로”

“종교는 국민 생활의 윤활유가 돼야 합니다. 심리적 비타민 같은 존재여야 하죠. 특정 종교에서 예배를 강행하는데 이는 국민과 사회에 누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아픔을 공감해주고 함께 아파해주는 것이 바로 자비이고 사랑입니다. 이것이 종교가 가진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심 스님은 한 달의 시간이 생긴 만큼 더 여법하게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준비를 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돼 5월 30일 법요식이 이를 기념하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는 기원도 전했다.

“4~5월이 되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5월에 열릴 연등회와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이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을 찬탄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축하하는 축제의 장이 됐으면 합니다.”

“코로나19 극복, 불교가 함께해요”

조계종 비롯한 각 종단 · 단체 성금 전달 등 자비행 잇달아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불교계가 잇달아 자비행을 펼치며 바이러스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지난달 부산시에 코로나19 피해 지원금 1000만원을 기부한데 이어, 3월 12일 대구시에 1억원을 희사했다. 아울러 팔공총림 동화사도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총 6000kg의 백미를 기탁했다.

이어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을 위해 성금 1억 원을 쾌척했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은 3월 19일 동국대 의료원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 기금은 동국대 일산병원과 동국대 경주병원에 각 5000만원씩 전달됐다.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총무원장스님께서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동국대의료원에 성금을 전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대신 전달하게 됐다”며 “이 기금은 불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은 성금인 만큼 뜻 있게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계종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을 돕고자 3월 19일 동국대 일산 · 경주병원에 각각 50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은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과 조성민 의료원장.

이에 조성민 의료원장은 “현재 우리 병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계종의 귀중한 성금은 일선에서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에게 큰 힘이 된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교총지종(통리원장 인선)은 BTN불교TV 특별 생방송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하루 전인 3월 17일, 불교TV에 성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서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불교TV 변대용 총괄국장에게 성금을 직접 전달한 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계각층에서 성금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총지종도 동참하게 됐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염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희망의 불씨가 되는 의료진, 관계자분들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천태종 NGO 사단법인 나누며하나되기(이사장 도웅)는 3월 16일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대구시를 방문, 현장 관계자들에게 구호물품을 기탁했다. 이날 천태종은 손 소독제와 고급 물티슈, 비타민음료, 구급약품, 기능성 장갑 등 2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고호석 대구시 재난팀장에게 전달했다.

이외에도 서울 삼천사와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이 3월 16일 은평구청에 2000만원, 강화 보문사와 전등사, 강화불교사암연합회가 19일 강화군에 1300만원을 전달하며 코로나19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길 기원했다.

한편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이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선 의료인과 공무원을 위한 특별 지원프로그램 ‘토닥토닥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문화사업단의 공익사업인 ‘나눔 템플스테이’ 일환인 이 프로그램은 3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의료인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템플스테이는 전국 137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중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휴식하기 좋은 사찰 10여 곳을 선정해 진행된다. 산사에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도록 휴식형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제공하며 최대 3박4일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위로와 힐링의 의미를 담은 특별 기념품도 제공된다. 토닥토닥 템플스테이는 전액 무료이며, 참가를 원하는 의료인 등은 템플스테이 예약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화사업단은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본 뒤 해당 템플스테이의 연장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

신성민 · 윤호섭 기자

[제언] 코로나19 퇴치, 무엇을 할 것인가

반야심경 암송하며 손 씻자

코로나19는 현실이며 장기화가 예상된다. 국민적 노력으로 극복해야 한다. 사회의 대소모임이 중단되고 상권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사찰이 법회를 중단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산사는 피로에 지친 불자와 국민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예절을 정해서 숙지토록 하고, 참배와 도량 순례 그리고 경내지의 등산을 허용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법당에서 참배도 조심스럽고 부처님오신날 법회도 연기되었으나 신심은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이미 마스크 착용 등 여러 준수사항들이 잘 지켜지고 있으나 몇 가지 사항을 예시하는 바 사찰은 물론 불자님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먼저, ‘반야심경 손 씻기’의 실천이다. 손 씻기를 우리 의학계는 30초, 미국은 25초 정도를 권장한다. 이를 셈하기가 어렵다. 개인차이가 있으나 반야심경을 속으로 빠르게 암송하면 대략 30초 정도 걸린다. 반야심경을 암송하면서 비누칠 손 씻기를 한다.

다음은 법당 방석의 위생상태 유지다. 법당에서 불특정 다수의 불자들이 방석 위에서 절을 한다. 이때 입이 방석에 밀접하게 되고 혹여 염불이나 기원을 말할 시 입이나 코의 비말이 방석에 묻을 수 있다. 마스크 여부와는 무관하며, 방석에 얼굴이 접하는 곳에는 개인 수건을 펴거나, 일회용 종이를 깔고서 한다. 사찰에서는 방석의 소독에 만전을 기한다.

산행 또는 사찰 참배 시 가능한 앞사람과 3-5m 거리를 유지하며 걷는다. 상대와 교차 보행 시 가능한 거리를 멀리하고, 좁은 곳을 교차할 시는 상호 간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해서 대면을 피한다.

법당에 참배는 가로 세로 각 약 2m(한 평 기준)에 한 명을 기준으로 하고, 참배객은 빈 공간이 날 때까지 기다린다. 염불은 소리내지 않고 속으로 한다.

참배는 가능한 빠르게 하고 법당 안에서도 마스크를 하고, 개인적으로 촛불이나 향은 올리지 않는다.

아는 스님이나 불자를 만나면 합장으로 인사하고 ‘엄지 척’으로 마음을 전한다. 대면 대화 시 가능한 2m 거리를 유지한다.

당분간 사찰에서는 공양을 하지 않으며, 차나 음료수를 마실 경우는 개인용기를 휴대해서 사용하거나 당분간은 일회용을 사용한다.

만일을 대비해서 매일의 개인일정을 기록한다. 방문처와 만난 사람들을 개인 일기장이나 휴대폰에 기록으로 남긴다. 휴대폰 등으로 이웃에게 응원과 안부를 수시로 전한다.



반야심경 속독, 대략 30초
꼼꼼한 손 씻기 시간 적절
법당 방석 사용도 주의를

산중의 공공 약수는 당분간 마시지 않으며, 사용한 휴지나 기타 물건은 집에 갖고 가서 처리한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불자들은 ‘약사여래 발원등’을 하나 더 밝힌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에 즈음해서 코로나19의 조속 퇴치를 발원하고 보살행에 솔선수범하는 사찰과 스님을 응원하며, 모든 국민의 건강을 발원하는 특별 등을 하나 더 단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시장에서 구매 시 만원어치 더 사기, 한 물건 더 구입하기 운동으로 사회저변부터 시장경제에 활력소를 불어 넣는 역할을 한다. 자리이타 보살행을 사회적으로 실천한다.

코로나19에 정신이 집중돼 사찰의 안전사고나 이교도의 훼불도 우려된다. 사찰은 안전사고의 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법응 스님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폐렴균, 대장균을 99.9% 정균 감소

폐렴균과 대장균을 99.9% 정균 감소하는 ORAL MATE®치약은 양치 후 뱉어 내지 않고 그대로 먹으면 폐렴균을 99.9% 정균 감소시키며, 폐렴 예방은 물론 퇴치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대장균을 99.9% 정균 감소시키는 ORAL MATE®치약은 식중독 및 배탈, 설사를 예방하고, 과식이나 과음으로 속이 불편할 때, 취기가 올 때 양치 후 뱉어 내지 않고 그대로 먹으면 속이 빨리 편안해지고 술도 빨리 깨며, 정신이 맑아집니다. 잇몸이 약하고 아플 때, 이가 시릴 때, 아픈 부위에 ORAL MATE®치약을 발라주면 통증이 그냥 사라집니다. 별도의 잇몸약이 필요없을 정도로 잇몸이 튼튼합니다.

포도상구균을 99.9% 정균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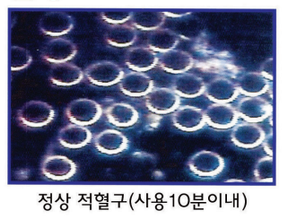
포도상구균(화농성 세균)을 99.9% 정균 감소하는 BLOOD MATE®비누는 아토피, 무좀, 가려움증, 비듬, 발뒤꿈치각질, 체취등 각종 피부질환을 없애주고 때를 일부러 밀지않고 거품으로 마사지 하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 보습과 투명피부의 효과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으며 특히 연전현상의 엉켜있는 적혈구가 정상화 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허리, 목, 어깨의 통증과 다리에 쥐나는것을 개선하는 효과.

보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닌데 BLOOD MATE®비누를 단 한 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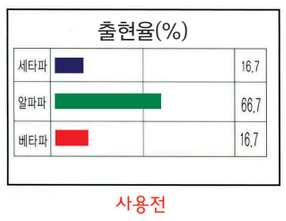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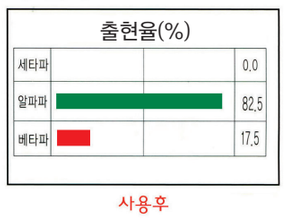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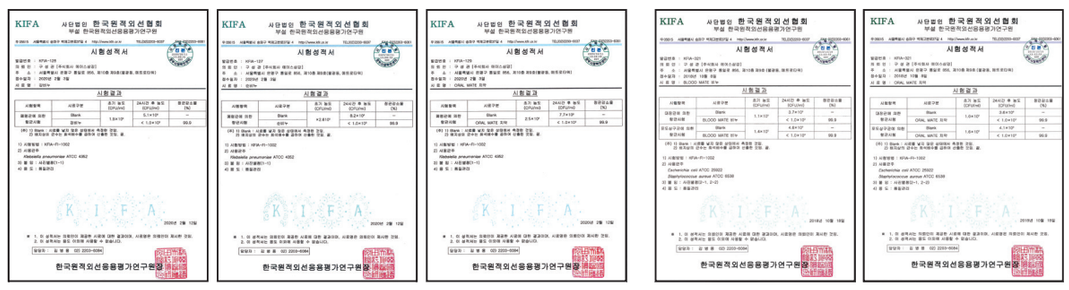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개발자 체험담

◉ 매년 겨울만 되면 감기로 고생했는데 BLOOD MATE®(비누) 거품으로 코 속을 마사지하여 감기를 잊어버린(나은) 경험.
◉ 비염, 축농증으로 코막힘이 심하고 누런 콧물이 자주 나왔는데 BLOOD MATE®(비누) 거품으로 코 속을 마사지한 후부터는 코가 뻥 뚫리고 누런 콧물이 없어졌다.
◉ BLOOD MATE®(비누) 거품으로 눈동자를 마사지하고 나서부터는 안경을 써야 볼 수 있던 신문을 안경 없이 볼 수 있고 눈동자에 힘이 생겼다.
◉ 개발자인 41년 3월생 남자 본인은 ORAL MATE®(치약)을 양치 후 뱉어내지 않고 삼켰더니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고 이틀에 한 번씩의 샤워로 6년 동안 감기, 몸살을 앓아 누워본 적 없다.
◉ 잇몸이 아프거나 이가 시릴 때에는 ORAL MATE®(치약)을 부위에 발라주면 통증이 그냥 없어진다.

BLOOD MATE® 강비누: 25,000원2개 = 50,000원
BLOOD MATE® 순비누: 15,000원5개 = 75,000원
ORAL MATE® 치 약: 21,000원3개 = 63,000원
~~188,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위와같이 BLOOD MATE®, ORAL MATE®는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공산품인 세정용 비누가 피부, 세포를 건강하게,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의약외품인 치약이 배탈, 설사, 식중독이 없어지고 구강건강을 지켜준다면

이는 식약처가 과대, 과잉광고로 단속을 하여 생산활동을 막을 것이 아니라 진위를 확인하여 오히려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적극지원, 보호, 육성하는 것이 올바른 국가정책이요 국가 산업발전, 해외수출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